

↑ 코스피	↓ 코스닥
2637.10 (+8.48)	725.15 (-13.20)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2.598 (-0.023)	1463.25 (+9.85)



##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 가계 경제에 '직격탄'

라면·만두·빵 가격 줄줄이 인상  
오투기, 2년 만에 라면가격 올려  
CJ·동원, 만두 등 주요제품 상승  
국민 71.5% "가계경제 악화 체감"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대응 필요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농심 제품 라면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먹거리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서민 경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주요 식음료는 물론 프랜차이즈 제품 가격 들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탓이다. 대표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라면'마저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하며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신라면 이어 진라면도 올랐다

20일 오투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라면류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라면 가격 인상을 한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오투기는 총 27개의 라면 유형 중 16개 유형의 라면 제품 출고를 평균 7.5% 인상한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진라면이 716원에서 790원으로, 오톡통면이 800원에서 836원으로, 짜술랭이 976원에서 1056원으로, 진라면 용기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농심 역시 지난 17일부터 신라면 가격을 1000원으로 다시 올리고, 새우깡 가격을 조정하는 등 총 56개 라면·스낵 브랜드 중 17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다.

먹거리 가격 인상은 지속 확산되는 추세다. CJ제일제당은 이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비비고 만두 20여종, 스펀 등 대표 제품 가격을 올렸다. 대표 제품인 왕교자 가격은 8980원에서 9480원으로 5.6% 올랐으며 스펀 클래식(200g)은 5080원에서 5580원으로 9.8% 인상됐다. 동원F&B도 3월부터 대형마트 유통채널에서 냉동만두 15종 가격을 평균 5% 올렸다.

빵 가격도 상승세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푸레쥬르는 지난 1일부터 빵류 94종과 케이크 16종 등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SPC 파리아베르도 지난달부터 빵 96종, 케이크 25종 가격을 평균 5.9% 올린 바 있다.

커피와 주류 등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1월 24일부터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등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다. 파스쿠찌 역시 2월 1일부터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등 주요 음료의 가격을 100~600원 올렸다. 롯데아사히주류는 3월 1일부터 아사히 슈퍼드라이 캔제품은 400원, 병

제품은 900원 인상한 바 있다. 식음료 업계는 고환율,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가격 인상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오투기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팜유 등 수입원료의 가격 급등과 농산물 등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유틸리티 비용과 인건비 역시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원가 부담이 누적되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10명중 7명 "경제적으로 어렵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물가 상승으로 올해 경제가 악화됐다고 답한 가계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국민 1000명 대상 '민생경제 현황 및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가계경제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선됐다'는 의견은 28.5%에 그쳤다.

가계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71.9%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물가상승'을 꼽았다. 이어 ▲실질 소득 감소(11.9%) ▲일자리 부족 및 불안정(9.5%) ▲부채 증가(2.7%) ▲교육비 부담(1.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다고 느끼는 부문은 '식료품 및 외식비'로 전체 72%를 차지했다.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역시 '식료품 및 외식비'라는 응답이 54.1%로 가장 높았다.

1년 후 가계경제 상황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64.2%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5.8%에 그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국민들의 가계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특히 먹거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삼성,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해 달라"

### 이재용 만난 이재명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돼  
대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사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든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삼성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누리길 바란다"며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사피(SSAFY·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요즘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달라서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 기회를 찾는 길을 삼성이 역량을 쏟아서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은 "정말 바쁘신 일정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피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피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고 사회

와의 동행이란 믿음 아래,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서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 한은 셈법 복잡

파월 의장 "관세 영향 지켜보아야  
경기 침체, 우려할 상황은 아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오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준은 19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24년 9월과 11월, 12월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총 0.75%p 인하했다. 이후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관련기사 3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여전히 높은 물가가 크게 작용했다.

연준이 물가 지표로 주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보면 1월 기준 2.5%로 집계됐다. 금리를 내렸던 지난해 9월 개인소비지출 지수는



2.1%에서 꾸준히 올라 그해 12월 2.6%까지 높아졌다. 목표치(2%)에 근접했던 물가가 또다시 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과월 연준의장(사진)은 "물가가 상승하는 데 어떤 요인이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근 2개월 동안 무역 상품에 대한 물가상승이 크게 나타났다"며 "이는 관세정책으로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고려해 소비자가 미리 구매하거나, 기업들이 미리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나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의 고용은 지난 2월 기준 15만1000건 늘었다. 지난해 9월 25만4000건까지 늘었던 일자리 수는 올해 1월 14만3000건까지 떨어

졌다. 반면 실업률은 2월 4.1%로 지난해 9월, 12월과 같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몇 개월간 고용은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업은 자연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날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7%로 높였다. 실업률도 4.3%에서 4.4%로 올렸다. 그리고 2%대로 예상하던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는 1.7%로 0.4%p 낮췄다.

파월 의장은 경기둔화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경기침체의 가능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4분의 1(25%) 확률로 존재한다"며 "2개월 전과 비교해 침체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이전에 극히 낮았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메트로 한줄뉴스



▲ 유시민 "尹 탄핵당하면 '우익' 유튜브서 활동할 것... 국회에 치명적 재앙"  
▲ '배신자 낙인' 與김상욱 "사형집행 기다리는 사람처럼... 울산서 선글라스 끼고 다녀" /사진 뉴시스

▲ 최태환 "헌재 앞 계란투척 철저히 수사... 재발 않도록 시위현장 관리 만전"  
▲ 민주당, '백혜련 계란세례'에 "국힘이 무법 조장한 탓... 방치한 경찰도 책임"

▲ 민주당, 檢 오세훈 압력에 "진작 했어야 할 일... 신속히 소환조사해야"  
▲ 민주당, 농해수위 與 불참에 "내란수괴 지키려 농업 내쟁거쳐"